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한 글자 '가'

현 정부, 정확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 정도까지 끓어올랐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국이 뜨겁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용지에 적힐 '가'라는 한 글자뿐이다.

국민 위에는 그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공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 바로 그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귀를 의심케 할 망언을 쏟아냈다. "12·3 비상계엄은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

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 직후 국민의 분노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양상으로 번졌다.

광주와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등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지표가 적힌 액자를 떼어내는 사진을 게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늘 자로 직위에서 파면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을, 5000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반헌법적 폭거도 모자라 열흘 만에 한 치의 반성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담화를 발표

한 것이냐"고 분노했다.

광주지역 각계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탄핵소추안 투표는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이번은 다르다. 여당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투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와 이를 방해하는 자로 나뉠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의 눈이 벌써부터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탄핵해야 하는 이유 ▶2면

국민 분노하게 한尹담화 ▶3면

尹부부 특검법 통과 ▶4면

비폭력 시위문화 정착 ▶5면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